

앨리스 인 베드

Alice in Bed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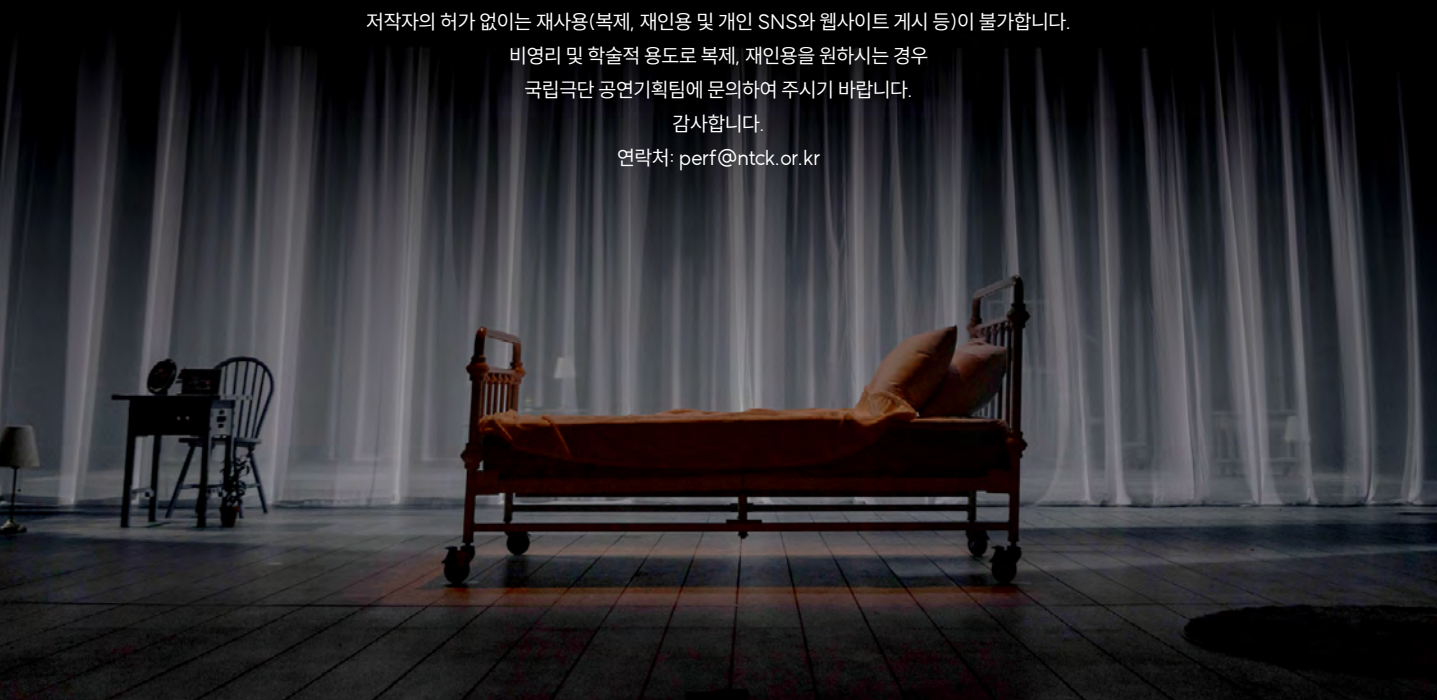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앨리스 인 베드

Alice in B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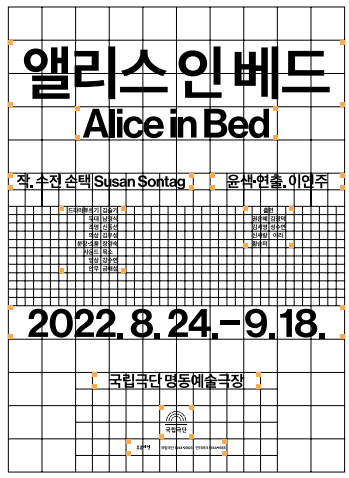
작 수전 손택 Susan Sontag
번역 배정희
윤색·연출 이연주

이 공연의 원작은 수전 손택의 희곡 『앨리스 인 베드』입니다.
Based on the play: ALICE IN BED Copyright © 1993, Susan Sontag All rights reserved



* 이 프로그램북은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일정 2022년 8월 24일(수) ~ 9월 18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2	시놉시스
4	원작
5	윤색·연출의 글
6	출연진
8	스태프 프로필
9	작품이해돕기1 작품 속 키워드
12	작품이해돕기2 8개의 키워드로 읽는 <앨리스 인 베드>와 수전 손택
14	작품이해돕기3 드라마투르그의 글
16	작품이해돕기4 창작진 노트
20	연습스케치
22	만드는 사람들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 정신이 날 강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날 주인으로 만들죠.
그런데 난 어떤 일에도 나 자신을 던지진 않아요.
난 그저 나의 굴에만 머물러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일기 작가인 앨리스 제임스는 유방암으로 죽기 전까지
여러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 시대 여성들의 질병은 정해진 증상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히스테리로 진단되었으며,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버지와 소설가였던 오빠는 자신들의 언어로 앨리스의 상태를 해석하려고 했다.
침대 속 앨리스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당대의 다른 여성들과 예술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을 만나고 로마를 여행한다.
마침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완전한 타인을 만나게 된다.
침대에서 자기 고통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
그 살아있는 목소리가 무대를 채운다.

“Sometimes I have such old thoughts.
My mind makes me feel strong. Makes me master.
But I don’t throw myself on anything.
I just stay in my lair.”

Alice James, a 19th-century American diarist, was bedbound for many years,
suffering from a number of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before she died of breast cancer.
At that time, hysteria was a common diagnosis for women
because there was no set list of symptoms.
Both her father, a well-known theologian, and her brother, a novelist,
tried to interpret Alice’s condition using their own language.
Alice in bed travels across time and space, encountering other women of her time
as well as heroines from works of art, and traveling around Rome.
At last, she meets a complete stranger who has nothing to do with her, and whom she did not ask for.
As she expresses and records her pain in her own language, her vivid voice fills the stage.

수전 손택

Susan Sontag

에세이 작가이자 뛰어난 소설가이며 예술평론가이다.
 첫 소설 『은인 The Benefactor』(1963)과
 에세이 『‘캠프’에 대한 단상 Notes on 'Camp'』(1964)을
 발표하면서 문단과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6년 평론집 『해석에 반대한다 against Interpretation』에서
 서구 미학의 전통을 이루던 내용과 형식의 구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에 반해석론을 주장하며
 전 세계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 뒤 극작가, 영화감독, 연극연출가, 문화비평가, 사회운동가 등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감수성의 사제’이자
 ‘뉴욕 지성계의 여왕’, 그리고 ‘대중문화의 퍼스트레이디’로
 미국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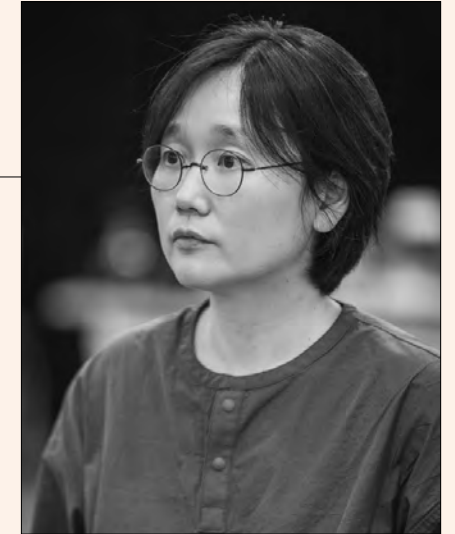


©Gerard Rondeau_Agence VU_Redux, 1995

이연주

윤색·연출

〈앨리스 인 베드〉는 저에게 참 어려운 희곡입니다.
 물론 희곡이 담고 있는 세계가 늘 깊고도 어렵지만,
 이 희곡을 읽으면서 내내 실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어긋나고,
 빗겨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감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또 다시 해석의 문제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려고 하면 희곡의 두께는 더욱 부피를 스스로 키워냈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침대 위의 앨리스 제임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자신의 결말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처럼
 읽을 때마다 새롭고, 다르게 읽혔습니다.
 연출의 글에 희곡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써버렸네요.
 생존 작가가 아니어서 마음껏 작가를 미워해보면서도
 이 세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말을 그저 다 믿어보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전 손택이 만든 허구의 앨리스에 생존했던 앨리스 제임스의 일기를 끌어오면서
 그 선택에 무게를 실어보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의 당사자인 한 여성의 목소리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권은혜
Kwon Eun Hye

젊은 남자, 토끼,
앨리스, 간호사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드랙X남장신사〉〈스카팽〉〈파우스트 엔딩〉
〈불꽃놀이〉〈레드올랜더스〉〈7번국도〉〈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더 정글북〉〈미녀와야수〉〈로미오와 줄리엣〉 외

김광덕
Kim Gwang Deok

미르타, 앨리스, 간호사



연극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발견되곤 합니다〉
〈인형극장: OUR SWEET HOME〉〈가지〉〈초인종〉〈네더〉
〈준대로 받은대로〉〈미디어〉

김시영
Kim Si Young

쿤드리, 앨리스, 간호사



연극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슈미〉
〈새들의 무덤〉〈1인용식탁〉〈이갈리아의 딸들〉〈말 잘 듣는 사람들〉〈아버지〉
〈미디어 온 미디어〉〈바보빅터〉〈락희맨 쇼〉 외

수상
2021 29아나 관람전 연기상

성수연
Sung Soo Yeon

앨리스, 해리



연극
〈로테르담〉〈로드킬 인 더 씨어터〉〈우리는 농담이 (아니)야〉〈아웃오브러브〉
〈엑트리스원-국민로봇배우1호〉〈엑트리스투-악역전문로봇〉〈관람모드-보는 방식〉
〈모랄하고 자빠졌네-악역연기메소드 연습〉〈러브스토리〉 외

거리극
〈A.SF〉

수상
2015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2015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연기상
2019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신사랑
Shin Sa-rang

에밀리, 앨리스, 간호사



연극
〈기후비상사태:리허설〉〈도덕의 계보학〉〈파우스트 엔딩〉〈아는 엔딩〉
〈스푸트니크〉〈전화벨이 울린다〉〈당신이 알지 못하나다〉〈날 위한 날 위한 너〉
〈괴벨스극장〉〈겨울이야기〉〈리차드 2세〉〈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목란연니〉 외

이리
Iri

아버지, 해리,
어머니, 간호사



연극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좋은 괴물〉〈요즘 귀어 공연이 많은가요?〉
〈로드킬 인 더 씨어터〉〈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킬링타임〉〈셰익스피어 소네트〉
〈드랙X남장신사〉 외

거리극
〈A.SF〉〈고기, 돼지〉

수상
2020 동아연극상 연기상

황순미
Hwang Soon Mi

마가렛, 앨리스, 간호사



연극
〈오아시스〉〈gv빌런 고태경〉〈더 나은 숲〉〈홍평국전〉〈물고기로 죽기〉
〈이게 마지막이야〉〈취지 스톨크〉〈집시들〉〈너에게〉〈9월〉 외

수상
2021 동아연극상 연기상
2022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 연기상

작 수전 손택 Susan Sontag

저서	『해석에 반대한다』 『급진적 의지의 스타일』 『다시 태어나다』 『사진에 관하여』 『은유로의 질병』 『우울한 열정』 『타인의 고통』 『강조해야 할 것』 『의식은 육체의 굴레에 묶여』 『문학은 자유다』 외
수상	1977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비평부문 1999 전미도서상 소설부문 2003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평화상

번역 배정희 Bae Jeong Hee

저서	『근대의 경험과 리얼리즘 소설의 여러 형식들 Erfahrung der Moderne und Formen des realistischen Romans』
역서	『임멘 호수·백마의 기사·프쉬케』 『차마 그 사랑을』 『청기사』 『그 때 프리드리히가 있었다』 외
공역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이별여행』 『공간, 장소, 경계』 『문화이론과 문학연구』 『집벌의 문화이론』 외

윤색·연출 이연주 Lee Yeon Ju

연극	〈당선자 없음〉 〈인정투쟁〉 〈예술가의 작업실〉 〈오마르〉 〈전화벨이 울린다〉 〈이반걸염〉 〈삼풍백화점〉 〈쉬는 시간 - 안산〉 〈2015 장에 제3의 언어로 말하다〉 외
----	---

드라마투르기 김슬기 Kim Seulgi

연극	드라마투르기 〈관람모드-있는 방식〉 〈X의 비극〉 〈모랄하고 자빠졌네-악역연기메소드 연습〉 〈인정투쟁: 예술가 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우리가 고아였을 때〉 외
작·연출	퍼포논문 〈더 리얼〉

무대 남경식 Nam kyoung sik

연극	〈당선자 없음〉 〈불가불가〉 〈금조 이야기〉 〈그때도오늘〉 〈완벽한 타인〉 〈템플〉 〈태양〉 〈시련〉 〈인간이든 신이든〉 〈조치원 해문이〉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X의 비극〉 〈팝〉 〈나는 광주에 없었다〉 〈존경하는 엘레나선생님〉 〈새들의 무덤〉 〈템페스트〉 〈레드올랜더스〉 〈인정투쟁〉 〈명왕성에서〉 〈그을린 사랑〉 〈진실거짓〉 〈시간의 난국〉 〈날 보러와요〉 외
----	---

조명 신동선 Shin dong seon

연극	〈웰킨〉 〈오아시스〉 〈인간이든 신이든〉 〈7분〉 〈당선자 없음〉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불가불가〉 〈콜타임〉 외
----	---

의상 김우성 Kim Wooseong

연극	〈파묻힌 아이〉 〈인간이든 신이든〉 〈당선자 없음〉 〈순교〉 〈밤의 사막너머〉 〈태양〉 〈시련〉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날아가버린 새〉 외
----	---

분장·소품 장경숙 Jang Kyung Suk

연극	〈얇은경계〉 〈편입생〉 〈달콤한 노래〉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잔인하게 부드럽게〉 〈웰킨〉 〈순교〉 〈당선자 없음〉 〈오아시스〉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금조 이야기〉 〈밤의 사막너머〉 외
----	--

사운드 목소 Morceau J. Woo

연극	〈베케트 몽타주〉 〈오아시스〉 〈당선자 없음〉 〈콜타임〉 〈탈피〉 〈머핀과 치와와〉 〈로드킬 인 더 시어터〉 〈홍평국전〉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 〈스푸트니크〉 외
----	---

영상 강수연 Kang Sooyeon

연극	〈편입생〉 〈당신을 초대합니다〉 〈숨〉 〈춤의 국가〉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2〉 〈산책자의 행복〉 외
----	---

안무 금배섭 Baesub Keum

연극	〈햄릿〉 〈기후비상상태:리허설〉 〈터키행진곡〉 〈어느날 난민〉 〈상형문자 무늬의 모자를 쓴 머리들〉 외
무용	〈오〉 〈믿음〉 〈궤도유지〉 〈간 때문이야!〉 〈나로서는〉 외
음악극	안무·연출 〈야드〉 안무 〈두 사랑〉
수상	2021 춤비평가상 올해의 작품상 〈춤판야무 연작솔로 오〉 2021 댄스비전 아름다운 시선상 〈춤판야무 연작솔로 오〉 2021 무용예술상 연기상 〈춤판야무 연작솔로 오〉 2020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부산국제무용제 AK21 우수상 2015 동아연극상 시각디자인상 공동수상

조연출 심지후 Sim Jihoo

연극	연출 〈큰 가슴의 발레리나〉 〈올가의 방〉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2021)
번역·연출	〈올가의 방〉
조연출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콜타임〉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목적지수〉 외

조연출·접근성매니저 김태령 Kim Taeryeong

연극	연출 〈나나〉 〈컬러보이〉
조연출	〈편입생〉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숨〉 〈춤의국가〉 〈마른대지〉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남쪽 나라로〉 〈보팔(1984~)〉 외

작품 속 키워드

인물

앨리스 제임스



앨리스 제임스 Alice James (1848~1892)

미국의 일기 작가이다. 부유하고 지적인 가정의 다섯 자녀 중 막내인 앨리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다. 앨리스는 1889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는 앨리스가 거론한 여러 인물들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 때문에 그녀가 죽은 후 여러 해 동안 출판되지 않았으며, 『앨리스 제임스의 일기 The Diary of Alice James』는 결국 1934년에 출판되었다. 앨리스는 일생 동안 건강 문제를 겪었고 일반적으로 히스테리라고 치부됐으며, 1892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캐서린 피바디 로링 Katharine Peabody Loring (1849~1943)

캐서린 피바디 로링은 미국의 교육자이다. 미국 최초의 통신 학교(Society to Encourage Studies at Home)의 역사학과장이었으며, 앨리스 제임스와 로링은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로링과 앨리스는 1873년 12월에 처음 만났으며, 1875년 제임스는 협회에 가입하여 학과장이었던 로링과 함께 역사를 가르쳤다.



뉴욕 레밍턴 스파(영국)에서 찍은 앨리스 제임스의 워친 장(1892년)을 그린 그림(1892년)

헨리 제임스



헨리 제임스 Henry James (1843~1916)

미국 태생의 영국 작가로 수많은 단편 소설과 희곡, 비평서, 전기와 자서전, 여행기, 그리고 20여 편의 장편 소설을 남겼으며, 『데이지 밀러』와 『여인의 초상』이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수전 손택은 헨리 제임스를 두고 “현실을 복잡한 언어로 휘감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위엄 어린 장인이자 언어의 마술사”라고 평했던 적이 있다. 그는 유명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와 일기 작가인 앨리스 제임스의 형제이기도 하다. 앨리스 제임스의 일기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 담겨 있는데, 해리는 앨리스의 일기를 본 뒤 다른 형제인 윌리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앨리스가 쇠약해진 원인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고 썼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Elizabeth Barrett Browning (1806~1861)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시인으로, 일생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15세에 낙마사고로 평생 동안 극심한 머리와 척추 통증을 겪었으며, 나중에는 결핵을 앓기도 했다. 그녀는 시한부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랑의 힘으로 15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다. 엘리자베스는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러브스토리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마가렛 풀러



사라 마가렛 풀러 오솔리 Sarah Margaret Fuller Ossoli (1810~1850)

마가렛 풀러는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가이자 평론가다.

그녀의 책 『19세기의 여성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은 미국 최초의 주요 페미니스트 작품으로 여겨진다.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고 잡지를 편집했으며,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에 문학 평론가로 합류하여 미국의 첫 여자 해외특파원으로 유럽 여행을 하며 유럽의 문화를 소개했다.

1850년 이탈리아 혁명에 참가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좌초하여 아이와 남편과 함께 익사했다.

미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상류계급 여성들의 교육자, 문학비평가, 초월주의자였던 그녀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의 헤스터와 비교되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여자라는 의미에서

‘마가렛 전설Margaret Myth’이라는 말을 남겼다.

에밀리 디킨슨 Emily Dickinson (1830-1886)

19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시인으로, 미국 시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에밀리는 거의 2000편에 달하는 시를 썼다.

대부분의 시에 죽음이 암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녀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였다.

그녀의 시는 당시의 일반적인 시와는 많이 달라 생전에는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에밀리의 여동생 라비니아 노크로스 디킨슨이 그녀의 시를 모아 시집을 낸 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빠 오스틴 디킨슨의 아내이자 친구였던 수잔 길버트 디킨슨과

서로 약 300편의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에밀리와 수잔이 단순한 친구, 시누이 관계를 넘어 연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에밀리 디킨슨



미르타 Myrtha

발레 <지젤>에 등장하는 윌리(결혼 전 죽은 처녀들의 정령)들의 여왕으로 허구의 인물이다.

미르타가 이끄는 윌리들은 밤마다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죽을 때까지 춤추게 한다고 한다.

미르타와 윌리들은 순박한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으로 광란의 춤을 추며 자결한 지젤을 무덤 속에서 깨워

윌리가 되는 의식을 주관한다. 지젤을 짝사랑 하던 일라리웅은 그녀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윌리들에게 잡혀

호수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를 하러 온 알베르를 또한 윌리들의 눈에 띈다.

미르타는 지젤에게 그를 유혹하여 지쳐 죽을 때까지 함께 춤을 추라고 명령한다.

*발레 <지젤 Giselle>은 아돌프 아당의 음악과, 테오필 코티에와 질-앙리 베르누아 드 생 조르주의 공동 각본,

장 코랄리와 질 페로의 공동 안무로 창작된 발레 작품이다. 1841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로 낭만 발레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지젤>은 중세 독일의 옛 전설인 ‘윌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쿤드리 Kundry

그녀는 평소에는 매우 순수하고 순박하지만 마법사 클링조르의 지배를 받으면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으로 변한다.

클링조르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쿤드리를 깨워 성배의 기사들을 유혹하라고 요구하고

혹시 그녀의 유혹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마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그녀는 성배의 기사들을 돕는 동시에 기사들을 유혹하여 위기에 빠뜨리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유혹을 이겨 내고 성배를 찾은 파르시팔 덕분에 쿤드리는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고,

수세기 동안 고대해 왔던 구원의 죽음을 맞이한다.

*오페라 <파르시팔 Parsifal>은 성배 전설이 토대가 된 리하르트 바그너의 3막 오페라이다.

성배 수호 기사들의 왕 암포르타스는 쿤드리의 유혹을 받아 클링조르에게 성창을 빼앗긴다.

‘순수한 바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성배 메시지가 전해지고, 정해진 질문을 했을 때만 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메세지의 주인공인 파르시팔은 성배를 찾아 왕에게 정해진 질문을 한다.

‘성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파르시팔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결국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답이었다.

질문은 곧 답의 주인으로 향하며, 이는 <앨리스 인 베드>에서 앨리스가 던지는 질문들로 연결될 수 있다.

1882년 바이로이트의 파르시팔 초연 작품 중 인물 쿤드리를 연기한 배우



기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흰토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1865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 기묘하고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제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겪은 모험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이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은 이 이야기는

훗날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색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에는

3월 토끼의 집에서 열리는 다과회인 '매드 티 파티'가 등장하는데

수전 손택은 이에 모티브를 얻어 『앨리스 인 베드 Alice in Bed』

티파티 장면을 썼다고 알려졌다.

원판의 표제지 (1865)



히스테리를 앓고 있는 여성의 1893년 묘사

히스테리 Hysteria

신경증의 한 형태로, 정신적 원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제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라에서 유래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히스테리의 원인을 자궁으로 보았고,

빅토리아 시대에 히스테리는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진단이었다.

아편 opium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꼬투리에서 유액을 말려 채취한 마약의 일종으로

특이한 냄새가 나며 강력한 쓴맛이 난다.

흡연용 아편은 담뱃대를 사용하여 작은 램프볼로 발연시켜 흡연하며

과도한 복용은 환각 증상을 일으켜 중독에 이를 수 있다.

<앨리스 인 베드> 작품 속 19세기에는 아편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었다.

런던의 아편 흡연자
London Illustrated News(1874)

참고

『앨리스, 깨어나지 않은 영혼』 수전 손택 작, 배정희 옮김(2007, 출판사 이후)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8개의 키워드로 읽는 〈앨리스 인 베드〉와 수전 손택

김선형

번역가·영문학자

철학자이자 소설가이며 정치적 행동가 수전 손택은 1990년 단 2주일 만에 희곡 한 편을 탈고한다.

집필 기간은 짧았어도 일평생 이 희곡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도 밝혔다.

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연극에는 수전 손택의 철학과 사상, 문제의식이 짙게 농축되어 담겨 있다.

〈앨리스 인 베드〉에 투영된 사상이 수전 손택의 면면을 8개의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질병/마비

이른바 “직업 환자”로 소개되는 앨리스 제임스의 특징은 마비와 무기력이다. 손택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땀에 걸린 여자”의 의식을 파고든다. 천재적인 재능과 지성이 있으면서도 진단명 미상의 질병들로 병상에 누워 삶을 흘려보내는 앨리스 제임스의 이야기는, 몸의 쾌락, 삶의 활력, 체험과 감각, 사회적 실천을 신봉한 손택이 상상하는 최악의 악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비와 통증은 양날의 칼이다. 실제로 활기 넘치던 수전 손택은 급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와병하며 질병에 의한 마비와 무기력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몸소 체험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지성과 정신의 초점이 또렷해질 수도 있음도 알았다. 질병의 언어와 사회적 담론의 권력을 해부한 『은유로서의 질병』(1978)은 투병 생활이 지성을 꺾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02 아버지/부모

앨리스의 무기력을 원천까지 파고 들면 아버지 헨리 제임스 시니어가 있다. 딸에게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성을 마음껏 사용”하고 “천재성을 발휘”하라고 주문하지만, 자살해도 되느냐고 묻는 딸의 질문에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다.

손택 역시 숙물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어머니와 평생 갈등했으며, 사랑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무기력으로 몰아넣는 기제를 잘 알았다. 손택은 아이가 부모를 박해자로 인식하게 되면 증오와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판타지로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앨리스 제임스와 헨리 제임스 시니어의 관계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덧붙여진다. 세계로 통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는 남성, 즉 아버지의 상이다. 아버지가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딸은 세상과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어머니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03 연민

앨리스의 오빠 헨리 제임스는 동생의 처지에 슬퍼하고 동생을 연민한다. 오빠가 아닌 소설가로서 헨리 제임스 역시 공감 능력의 화신이다. 공감 능력은 문학성이고 예술성이다. 『여인의 초상』이나 『데이지 밀러』와 같은 대표작에서 실제로 비극으로 내몰리는 여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해부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중의 관점이 함께 작용한다. 수전 손택은 작가로서 헨리 제임스를 열렬하게 숭앙했다. 그러나 유명한 저서 『타인의 고통』(2003)에서는, 방관자로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 ‘연민’은 무기력과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앨리스의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04 상상과 환상

헨리 제임스 시니어는 “실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일까. 이 작품은 앨리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비중이 크다. 앨리스는 마비의 현실을 상상력으로 돌파하려 한다. 상상력으로 허구적 인물을 소환해 티파티를 벌인다. 피렌체로의 여행을 완벽한 세부묘사로 상상한다. 상상력의 힘은 방에 국한된 앨리스의 세계를 확장하지만, “부르주아적 심리적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는 젊은 도둑과의 짧은 만남이 주는 충격은 “상상력의 승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손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믿었고, 모든 게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고립된 유아론은 현대적 감성의 유혹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인간은 실재하는 세계와 어떻게든 부딪쳐야 한다.

05 글쓰기의 작인

손택은 “작가의 사명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세계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소명은 바로 이 세계에 만연한 “착시와 허위와 선동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만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넌 원해야 해.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요구해야 해.”라고 말하는 마가렛 폴러와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목소리에서 손택의 사상이 메아리친다.

06 여성/젠더

천재들의 가문에서 태어나 비대한 정신세계를 안고 방안에 고립된 앨리스 제임스와 소아성에 경향이 있는 남성의 환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뒤섞여 탄생한 〈앨리스 인 베드〉는 여성을 마비와 무기력으로 몰아넣는 서구 부르주아 문화의 근본적 부조리를 폭로한다. 손택이 19세기의 빌라를 방문하던 중 겹겹이 쌓인 매트리스를 보고 그 밑에 깔려 허우적거리는 여성을 상상한 데서 출발한 이 작품은,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손택의 깊은 분노를 드러낸다.

07 예술과 해석

“예술 작품 고유의 특징은 개념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매혹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흥분, 참여, 판단에 연루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유혹이지 강간이 아니다.”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의 수호자였던 손택은 예술작품이 실존하는 세계처럼 감각과 지성을 모두 동원해 체험하는 현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술의 에로티스를 주창한 『해석에 반대한다』(1966)는 현대 예술 비평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08 사랑/실존

“사랑을 한다는 것, 다른 이의 유일성을 미묘하고 날카롭고 결코 잊을 수 없이 의식한다는 것.” 손택은 사랑이 세계를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 실존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티파티를 벌이는 마가렛, 에밀리, 쿤드리, 미르타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사랑한 여성들이다. 손택에게 삶의 조우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유혹이자 상호작용이다. 환상으로 점철된 극이 계급이 다른, 즉 다른 세계에서 온 도둑과의 짧지만 현실인 만남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앨리스 인 베드> 고통을 말하는 이의 권능,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응답

김슬기

드라마투르그

극장은 안전하고도 불온한 곳이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면, 오직 무대에서 생겨나고 번져가는 것들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된다. 연극을 구성하는 약속은 무대와 객석 사이 암묵적 합의를 통해 유지되고, 극장 밖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낸다. <앨리스 인 베드>는 그러한 극장을 앨리스의 존재 방식 그 자체로 전유한다. 실재하지 않는 것에 숨을 불어넣고, 서로 다른 시공간에 속해 있는 이질적인 것들을 여기로 불러오는 것이 연극이라면, 그 모든 가능성을 갖고 놀면서 연극이라는 몸을 입고 자기 세계를 펼쳐내는 이, 그가 바로 침대 속 앨리스다.

★ ★ ★

앨리스 제임스(1848~1892)는 미국의 일기 작가이다. 아버지는 신학자였으며, 오빠들은 심리학자였고 소설가였다. 명망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앨리스는 여러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마흔두 살 유방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침대 속에서 살았다. 그는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처음 자신을 뒤흔들었던 강렬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데, 죽음에 이르기 몇 해 전 오랜 세월 관찰해온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평화와 안식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음울한 달팽이와 같이 조금 기어오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면 의사들은 너에게 죽거나 회복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는 회복하지 못한다. 열아홉 살 이래로 나는 이러한 것들의 교대 속에 있었고, 죽지도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마흔두 살이고, 분명 둘 중 하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었다.”¹⁾

수전 손택은 이러한 실존 인물 앨리스 제임스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회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앨리스는 그저 삶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침대로 간다. [...] 그건 병듦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건 여자임에 관한 거다.”²⁾ 그리고 손택은 이렇게도 말한다. “모든 것은 그녀의 천재성, 독창성, 공격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한 여자에 대한, 너무나 일반적인 현실에 관한 것이다.”³⁾ 확실히 앨리스 제임스는 정해진 증상 목록이 없는 여성들의 모든 질병을 히스테리아로 분류하던 시대에 살았고, 사후 출판된 일기가 증명하듯이 충분히 총명하고 명민했음에도 오빠들만큼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 ★ ★

하지만 연극 <앨리스 인 베드>는 그런 앨리스가 자신의 상태를 자기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진단하는 외부의 시선을 거부하는 것, 침대에 누워있는 존재를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롯이 스스로를 대면하고 모두를 그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손택의 회곡을 다시 읽어냈고, 현실과 기억, 꿈, 상상, 나아가 과거와 미래를 제 뜻대로 불러오고, 새로 써 내려가는 침대 속 앨리스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연극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가능성의 존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모든 이들이 침대 밖으로 그를 끌어내기 위해 의지를 가지라고 말할 때, 심지어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조차 우선 일어나라고 그를 몰아붙일 때, 앨리스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금지로 자신의 세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정신의 작용을 부인하지 않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그 순간을 거둬 살아내려 하는 앨리스. 그는 고통과 질병, 장애에 대한 모든 주석을 걷어내고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한 음절로 된 반향의 고향, 가장 흥미로운 존재인 나 자신에 의해 쓰인 모놀로그를 제외한 아무것도 허락지 않는 나의 상황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위안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나는 적어도,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가질 것이고, 그것은 최악으로 인한 나의 불쌍하고 나이 든 몸 안에서 영원히 발효된 감정, 감각, 사색과 성찰의 샘으로 이르는 어떤 배출구로서 안도감을 가져올 거다; 그러니, 여기 간다, - 나의 첫 번째 일기.”⁴⁾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신을 대상으로 놓아두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주체로 구축하는 작업일 것이다. 연극 <앨리스 인 베드>는 그 모든 역동의 순간을 무대에 쓴다. 여기서 앨리스의 존재 방식이란, 끊임없이 자기 역사를 재생하면서 그곳에 되풀이 거주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여, 그것은 결국 앨리스에게 쏟아졌던 모든 무망한 요구와 기대들에 대한 응답이 된다. 난데없는 것들의 출현, 쇠도하는 빛과 소리, 유동하는 공기로 육박해오는 앨리스의 세계. 자신의 침대를 둘러싼 온갖 폭력들을 고발하기 위해, 그러나 자족적으로 자기 고통에 머물지 않기 위해, 여기, 간다. 침대 속 앨리스가.

1) Matthiessen, F. O., *The James family : including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Henry James, Senior, William, Henry, & Alice James*, New York : Alfred A. Knopf, 1947, p. 272.

2) Hartigan, Patti, “Notes on the bed Susan Sontag woman of ideas, takes to the ART stage to dramatize ideas of women: [City Edition]”, Boston, Mass. Apr 7,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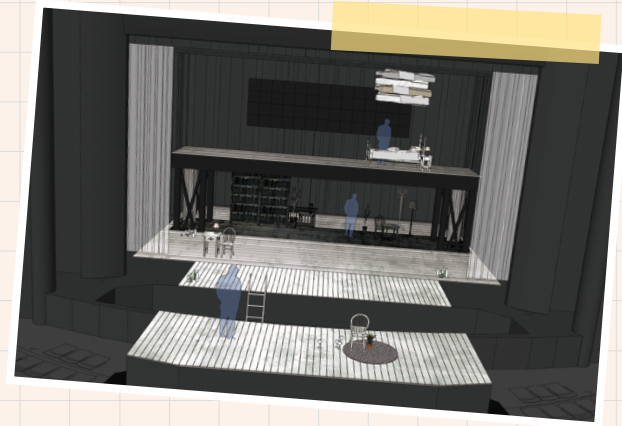
3) Jonathan Kalb, “Susan and Bob in Bed”, *The Village Voice*, Jan 4, 1994, p.81.

4) Matthiessen, F. O., *op.cit.*, p.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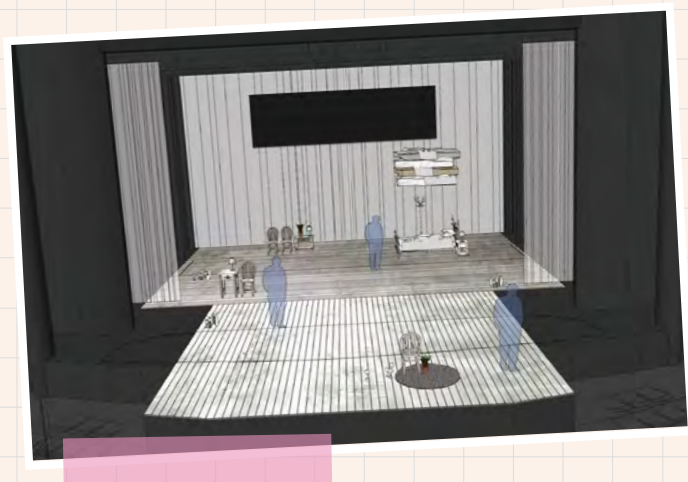
남경식

무대디자이너

연극 <앨리스 인 베드>의 시각적공간의 큰 기준은
극중 인물 '앨리스'의 시선의 방향과, 인물들 간의
거리감으로 공간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공간전체가 앨리스의 시선에 따른
'상징적 이미지'의 겹'으로 표현된다.



앨리스의 사적인 공간인 침대, 그 위로 짓누르는 매트리스 더미는 그간의 시간을 보여주며, 주요 오브제로 위치한다,
앨리스의 시선을 따라 무대의 상하, 좌우, 앞뒤 등 여러 '겹'을 가진 새로운 공간이 자유롭게 극 안으로 스며 들어온다.
공간의 다채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앨리스의 무대가 만들어진다.
무대의 물리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너른 'U'자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극장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리프트와 오케스트라피트를 활용해 무대바닥의 상하 구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무대의 중간과 뒷쪽 흰색 쉬폰천의 커튼 전환으로 장면의 겹을 더해간다.



또한 연극 <앨리스 인 베드>는
베리어프리 공연을 지향하여,
상부에 행잉되는 LED 자막패널과
프로젝트 자막판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막을 전달하며,
1층 객석 12, 13열의 사이드에
휠체어석을 설치한다.

강수연

영상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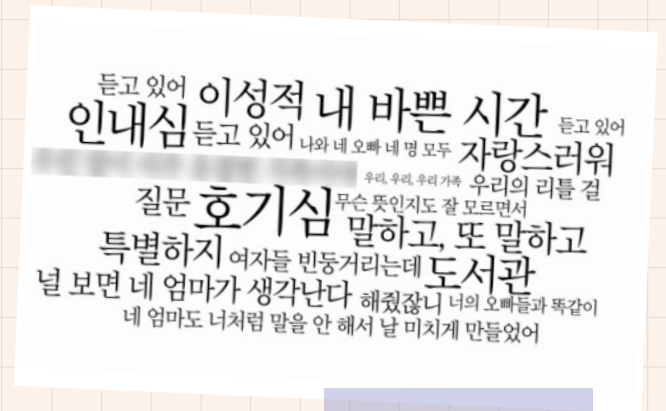


<앨리스 인 베드>에 등장하는
앨리스 제임스는 일기 작가이다.
일기라는 것은 글이 읽혀지는 것 보다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침대에 있을 수밖에 없던 앨리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한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앨리스는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

앨리스에게 글은 그의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로
공간을 확장하는 도구였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를 찾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나의 세계를 확장한 언어는 무엇이었지 생각을 하며
앨리스에게 글이라는 것은 그의 세계를 확장했던 것처럼
무대에서 영상도 앨리스의 공간을 확장하는 입체로 보였으면 한다.



금배섭

안무가

머리로는 도통 이해되지 않을 감각들

저는 연극안무에 있어 작품의 서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나 구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작품은 보다 풍성해지고 감각적인 작품이 됩니다. 대본의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은 대본과는 다른 안무로 구성될 경우, 우리는 낯선 감각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낯선 감각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내안에 있던 무언가(경험, 생각, 기억...)와 만나서 자신만의 해석이나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상적인거 같습니다. <앨리스 인 베드> 5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안무를 시도했습니다. 대본자체가 편안한 서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추구하는 안무방법은 작품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논리나 서사가 아닌 각자가 갖고 있는 감각이나 감정과 만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볼 때라던가 음악을 들을 때, 혹은 풍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만나졌을 때 흔히 하는 말로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자신만의 감각과 만났을 때이죠. <앨리스 인 베드>도 자신만의 감각과 만나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즐거운 관람되십시오.

김태령

조연출·
접근성매니저

<앨리스 인 베드>는 공연기획 및 제작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수어통역, 음성해설, 한글자막 등 배리어프리 장치를 계획하였다.

매 회차 제공되는 한글자막은 무대 위 가로 7미터 세로 2미터의 대형 LED판에 실시간으로 대사와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등 다수의 연극에서 한글자막을 제작하며 노하우를 쌓은 이효진 감독이 제작 및 운용한다.

배리어프리 회차에 한하여 제공되는 한국수어통역과 음성해설은 연극 내 통역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공인수어통번역 잘함'이 제작하였다. '공인수어통번역 잘함'은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품 분석 과정을 거치며 해석과 표현에 대한 고민을 프로덕션 팀과 지속적으로 나누었다. 또한 연극에서 인물과 작품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듯, 통역사의 성별 연령 등 각 통역사의 특성을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섭외하였다.

<앨리스 인 베드>의 수어통역사는 김홍남, 조유나, 허운영 3명의 여성 통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전달을 위해 연극배우의 활동을 겸하고 있는 허운영 통역사를 섭외하였다.

음성해설에는 유주현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았다. 현장해설사 양성 및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문화 공연, 행사, 박물관 국회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해설사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연극 <당선자 없음>에서도 현장감 넘치는 음성해설을 제작, 진행하였다.





만드는 사람들		
출연	무대제작 에스테이지	하이라이트영상 247
권은혜 김광덕 김시영 성수연	(대표 임정자)	(대표 장정진)
신사랑 이 리 황순미	제작팀 정우상 김세진 차승호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이종민 정우근 김용선	(대표 박신우)
	이승용 정병문 이범용 정재현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스태프		(대표 김은총)
작 수전 손택 Susan Sontag	작화팀 이남련 박윤경 박지원	옥외광고 애니애드
번역 배정희	신혜원 조정숙 김미경	(대표 윤소향)
윤색·연출 이연주	소품제작 분가분가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장경숙)	(대표 김종민)
	소품팀 장경숙 남혜연 임민정	
	의상제작 kostume	
	(대표 김우성)	티켓 김보배
드라마투르기 김슬기	조명장비임차 트리거컴퍼니	매표 안내원 김경은 손주형
무대 남경식	(대표 황종량)	양혜선 이승희
조명 신동선	영상장비임차 인터랙션랩	
의상 김우성	(대표 윤민철)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분장·소품 장경숙	LED패널임차 (주)뷰미디어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홍정선 이신영
사운드 목소	(대표 문태성)	손윤희 고찬하 한현지
영상 강수연		김가민 김은유 이세인
안무 금배섭		서정은 강현우 박서린
조연출 심지후		이수민 이태경 최주영
조연출·접근성매니저 김태령	음성해설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대본·내레이션 유주현	
	한국수어통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이동지원안내원 김다빈 김종현
	김홍남·조유나·허윤영	
	한글자막 제작·운용 이효진	프로그램북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대표 김은총)
	영문자막 번역 조용경	프로그램북인쇄 한림문화사
	영문자막 제작·운용 이아름	(대표 손경훈)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한지선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마케팅 노소연	프로듀서 김정연
	온라인마케팅 조영채 오지수	제작진행 고예원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제작 (재)국립극단
	박예지 이에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홍보사진 오테일 스튜디오	
	(대표 오테일)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연두픽처스	
	(대표 조윤수)	
	홍보영상 602 STUDIO	
	(대표 김영준)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홍보마케팅팀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박보영 팀장
김광보 이사 (재)국립 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한지선 홍보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현아 이송이 변정원 노소연 마케팅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오지수 조영채 온라인마케팅
심재찬 이사 연출가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김한경 정진영 청년인턴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무대기술팀
김광보	정광호 팀장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제작감독
	윤성희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사무국장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오현실	박지수 의상감독
	서동민 박소는 청년인턴
	이유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작품개발팀
신민희 팀장	정용성 팀장
현승은 김수아 김미지 예산·회계·세무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정보관리·창작극개발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이지연 아카이빙·작품개발 정보관리
박지민 박예원 대외협력·평가	김가은 청년인턴
이민희 인사·제도개선·이사회	
주현우 노무·구매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복무·복지후생	
김혜원 윤리경영·교육	
공연기획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옥경 팀장	김성제 소장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김미선 프로듀서·작품개발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손준형 연구개발·기관협력
김수현 박소영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박성연 공연제작·온라인콘텐츠
김나래 임아라 하우스·접근성매니저	이송하 청년인턴
박유나 연수단원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현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헤미 정대진 정슬기 정대진 정슬기

세인트 조앤

Saint Joan

작.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연출. 김광보

번역 임성균
윤색 윤성호
안무 금배섭
무대 박상봉
조명 이동진
의상 홍문기
사운드 목수
분장 이동민
소품 정윤정

출연
백은혜 강현우
김다현 김수향
박상중 박용수
박진호 유연수
윤성원 이동준
이승주 장석환

2022. 10. 5. - 10. 30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푸른하늘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스카펫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X의 비극

연극을 내 일상과 가장 가깝게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on.ntck.or.kr

우진, 운동원 배우 편

소년이그랬다

연극이 주는 진한 감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면?
국립극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립극단 후원

- ✓ 1만원부터 자유롭게
- ✓ 첫 후원 감사 선물 증정(연말 발송)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시 후원



정기 후원

문의
1644-2003

www.ntck.or.kr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급,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매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당일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BISTRO 수방.J

비스트로 수방.J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J' 10% 할인

02-3789-8679



명동문고

- 도서, 문구, 디지털, 완구, 잡화 등 전 품목 10% 할인

※ 잡지, 문제집, 종교관련(도서/성물), 음료, 의류 제외
※ 포인트 적립 불가

02-752-2015

CREAM CHIC

크림시크 디저트 카페

- 테이크아웃 음료 잔당 1,500원 할인 또는
매장 이용 시 제조 음료 10% 할인

02-779-9271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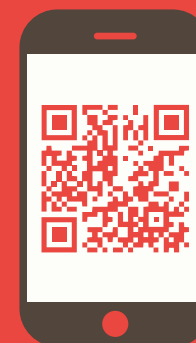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난 진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달랐거나.
난 애썼어요. 어딘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